

세계도로협회(PIARC) 북경세계총회

윤성오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도로환경팀장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I. 개요

세계도로협회(PIARC) 세계총회가 중국의 북경에서 2005년 10월 9일(일)에서 14일(금) 동안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교통부 도로환경팀의 윤성오 팀장과 도로건설팀의 김종천 사무관, 한국교통연구원의 권영인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PIARC의 2006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회원국가들의 승인과 세계도로의 최근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PIARC는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도로행정, 정책, 계획 등 도로분야의 국제협력 조직으로서 현재 전 세계의 109개국에 국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각국 정부의 도로국장이 대표가 되며, 회원국 중 34개국에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6년 3월 27일~30일 이태리의 토리노에서 개최되는 차기 겨울도로회의(Winter Road Congress)와 2007년 9월 17일~2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차기 세계도로회의(World Road Congress)개최계획에 대한 의결과 2010년 겨울도로회의 개최지를 캐나다의 퀘벡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이었다.

II. PIARC의 소개

PIARC는 1908년 제1회 세계도로회의가 프랑스의 파리에서 개최된 직후인 1909년에 15개국의 회원국으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130여개 국가의 중앙정부, 지역정부, 공공단체, 개인 등 약 2천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4개 국가에 국내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에 국가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나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는 아직까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륙별 회원국을 보면, 아메리카 21개국, 유럽 32개국, 아프리카 27개국,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29개국 등으로 단연 유럽 중심의 조직이다.

현재의 회장단을 보면, 회장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코린 조르단(Colin Jordan), 부회장은 스페인의 크리아도 발레스테로스(Criado Ballesteros)와 캐나다의 안느마리 렉레르크

(Anne-Marie Leclerc), 사무국장은 진프랑고이스 코르테(Jean Francois Corte)이며 1997년에서 2000년까지 회장을 지낸 일본의 히로시 미타니 명예회장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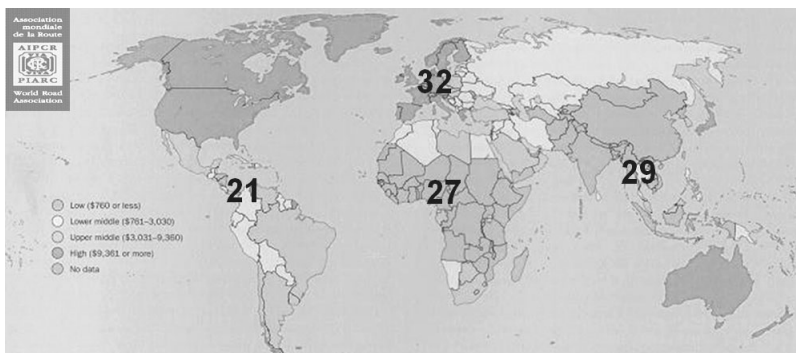
PIARC는 비정치, 비영리 단체로서 도로 및 도로공학과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범세계적인 국제기구이다. PIARC는 도로정책, 도로계획, 도로행정 등 도로분야에 대한 정보



[그림 1] PIARC의 홈페이지(www.piarc.org)



[그림 2] PIARC의 홈페이지(www.piarc.org)



[그림 3] 대륙별 PIARC 회원가입자수

및 기술교환과 더불어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기술교류와 최근의 연구동향을 논의하고, 신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IARC는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oad Congress”의 약자로 1995년 9월부터 공식명칭을 “World Road Association”로 개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PIARC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PIARC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공식 사용언어로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참고로, PIARC와 쌍벽을 이루는 도로부문의 국제조직인 세계도로연맹(IRF,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은 1948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9년에 제11회 IRF 국제도로회의(World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한 적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제15회 세계도로대회를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PIARC의 주요활동은 매 4년마다 월드컵 경기의 다음 해에 개최되는 세계도로회의 및 세계도로박람회와 월드컵 경기와 같은 해에 개최되는 겨울도로회의와 겨울도로박람회, 그리고 매년 각국의 대표가 참가하는 연례총회가 있다.

III. PIARC의 주요활동

PIARC는 1909년에 제1차 세계도로회의를 개최한 이래 평균 4년에 한번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세계도로회의(World Road Congress)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도로회의(World Road Congress

es)는 1979년 Wien, 1983년 Sydney, 1987년 Brussels, 1991년 Marrakech, 1995년 Montreal, 1999년 Kuala Lumpur, 2003년 Durban이며, 겨울도로회의(Winter Road Congresses)는 1986년 Tampere, 1990년 Troms, 1994년 Seefeld, 1998년 Lule, 2002년 Sapporo에서 개최되었다.

PIARC의 주요 활동은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의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그룹(Committees & Working Groups), 세미나(Seminars), 국제협력활동(International Cooperation), 특별활동(Special Activities), 보고서 출판(Publication) 등으로 이루어진다.

①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그룹(Committees & Working Groups) 활동은 18개의 기술위원회와 3개의 실무그룹에 의한 분야별 최소한 매년 2회 이상의 회의가 소집되고, 수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② 세미나(Seminars)는 다른 국제 및 지역의 단체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도로분야의 정보와 실무경험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세미나는 가급적 기술이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하도록 주선되고 있다.

③ 국제협력활동(International Cooperation)은 도로 및 도로교통과 관련된 UN, World Bank, OECD, IRF, ITE, REAAA 등의 국제적인 도로 및 교통분야의 기구, 지역단체와 정기적인 모임 등을



[그림 4] PIARC가 발간한 주요 출판물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Countries가 대표적이다.

④ 특별위원회 (Special Activities)에서는 1997년 시작된 도로개발 및 관리시스템 (HDM : Highway Development & Management System)과 1998년에 설립된 도로기술 이전센터 구축 등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도서출판(Publication)으로는 매년 4회 출판되는 정기간행물인 Routes/Roads와 수시로 발행되는 PIARC보고서 등이 있다. 최근 발행된 보고서로는 세계 각국의 ITS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을 수록한 ITS Handbook 2000과 PIARC 회원국의 도로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법을 비교, 소개한 Economic Evaluation Methods for Road Project in PIARC Member

IV. PIARC의 2005년 북경 세계총회

PIARC는 매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해의 주요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의결을 위하여 매년 9, 10월경에 총회를 개최한다. 2004년 9월에는 프랑스의 Montpellier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10. 10(월)에서 14일(금)까지 5일간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올해의 총회에서는 기술이전개발위원회, 도로정책기술위원회, 국내분과위원회, 도로행정토론회 등도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현장견학으로 2001년에 개통된 바다링 고속도로, 베이징 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중국 교통부의 도로교통성능시험센터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PIARC 활동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국내위원



[그림 5] PIARC 북경총회의 전경

회(National Committee)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었다. PIARC의 국내위원회는 PIARC의 활동과 각국 내부의 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한 조직으로서 급변하는 세계도로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도로관련 기관과의 정책, 연구부문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회원국으로 활동 중이지만, 국내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 PIARC와의 국제적인 연계활동은 미약한 상태이다.

현재 국내위원회는 회원국 중 31개국에 구성되어 있고, 아시아는 일본과 인도만이 가입되어 있다. 국내위원회에게는 매년 각국에서 납부되는 회비의 30%를 활동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회비 9,400유로의 30%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위원회는 PIARC의 18개 기

술위원회 중 시급한 분야인 도로체계의 경제성(Road System Economixs), 도로투자재원조달(Financing Road System Investment), 도로행정의 성과(Performance of Road Administrations), 지속가능한 도로교통(Sustainable Development and Road Transport), 도로안전(Road Safety) 분과 등에 우선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국내위원회 구성을 위하여는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학회 및 협회,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만들어 PIARC의 기술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도로관련 최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